

## 가을을 품은 꽃 한송이

November, 2016 | 에디터 박수현



© 문성식 | Talking Tree 2, acrylic on canvas, 100x80cm, 2006 | 사진 제임스 구재광/에디터

### 모든 존재에 존엄을

문성식 작가는 모든 사물과 존재를 다소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묘사한다. 화면 뒤까지 무한히 반복되는 나뭇잎 한 잎 한 잎을 동일한 정성으로 그려내는 그의 작품에서는 미미한 사물에 대한 불교적 성찰에 가까운 태도가 엿보인다.

에디터 박수현